

국내 방송사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율 평가

유강수*, 김남이**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Rate Evaluation of Domestic Broadcaster Site

Kangsoo You*, Namyee Kim**

*Jeonju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 gsyoun@jj.ac.k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사 사이트의 웹 접근성에 대한 준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KWA-H 4.0 자동평가 도구에서 제공하는 6개의 지침으로 준수율을 평가하였다. 방송사 웹 접근성 준수율은 6개 지침 중 새창열기 항목이 80.2%로 가장 높은 반면, 마크업 오류방지 항목은 36.2%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makes an evaluation whether compliance on the web accessibility of domestic broadcasters site is observed to some degree. The compliance rate is estimated by six guidelines provided in KWA-H 4.0 automatically assessed tool. While the compliance rate of the broadcaster web accessibility is the highest in 'open new window' by 80.2% among six guidelines, the item of 'markup error prevention' demonstrated the lowest level by 36.2%.

키워드

KWA-H 4.0, Web Accessibility, Guidelines, Domestic Broadcasters

I. 서 론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특수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10년도에는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100인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과 같은 교육기관과, 입원 30인 이상 규모의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근로자 100~300인 규모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 하였다. 2012년도에는 1000석 이상 규모의 민간종합 공연장과 사립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000㎡ 이상의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100인 이하 규모의 보육 시설과 같은 교육기관, 그리고 근로자 30~100인 규모의 민

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300석 이상의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영화관, 500㎡ 이상의 조각공원, 문화의집, 복지회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까지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사 사이트에 대해 누구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국내 방송사의 웹 접근성 준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2.1 평가도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WCAG,

WCAG 1.0 그리고 WCAG 2.0을 발표한 이래로, 접근 가능한 웹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제안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현재까지 웹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동화된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2][3].

국내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로는 K-WAH(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2.0)이 있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현재 K-WAH 4.0까지 버전 업 되어 배포되고 있다. 프로그램과 사용방법은 웹 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2.2 평가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국내 방송사 웹 사이트 접근성 국내 방송사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율 평가를 위하여 국내 5개 방송사 웹 사이트를 평가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평가 도구는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K-WAH 4.0이라는 자동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K-WAH 4.0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2013년 1월에 배포되었다[4][5].

K-WAH 4.0은 KWCAG 2.0에 따라 웹 사이트가 접근성 지침의 6개 세부지침 - ①대체텍스트 제공, ②제목제공, ③기본언어 명시, ④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 창 열기, ⑤레이블 제공, ⑥마크업 오류 방지-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자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6개의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국내의 5개 방송사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율을 평가한다.

III. 평가결과

6개 세부지침에 따른 국내 5개 방송사의 웹 접근성 평균 준수율은 표 1과 같이, ①대체텍스트 제공: 80.0% ②제목제공: 45.5% ③기본언어 명시: 69.3% ④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 창 열기: 80.2% ⑤레이블 제공: 61.9% ⑥마크업 오류 방지: 36.2% 수준을 보였다.

표 1. 세부지침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율(%)

방송사명	①	②	③	④	⑤	⑥
MBC	83.4	12.7	75.0	26.7	100.	85.0
KBS	36.9	56.6	69.0	94.3	4.9	25.0
SBS	82.6	94.3	6.3	97.9	5.0	68.8
EBS	98.7	33.1	99.0	95.7	100.	1.0
YTN	98.5	30.9	97.0	86.3	99.7	1.0
평균	80.0	45.5	69.3	80.2	61.9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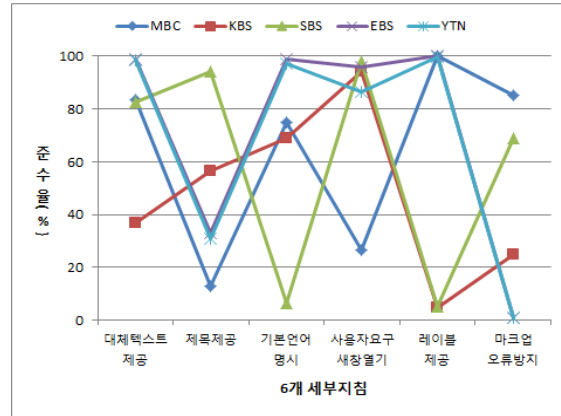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5개 방송사의 웹 접근성 준수율

표 1과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5개 방송사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36.2%~80.2%로 나타났다. 이는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여야 웹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아주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6].

IV. 결 론

국내 대표 방송사 5곳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율이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정부와 방송사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준수 등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31202010960600003, 디지털타임스, 2009.
 [2] Pornpat Sirithumgul, Atiwong Suchato and Proadpran Punyabukkana, "Quantitative evaluation for web accessibility with respect to disabled groups," Proc. of W4A'09, pp.136-141, 2009.
 [3] 최경호, 유강수, "프로스포츠 웹 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399-406, 2012.
 [4] 한국정보통신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ICS.OT-10.0003/R1, 방송통신위원회, 2013.
 [5] <http://www.wah.or.kr>, 웹 접근성 연구소
 [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웹 접근성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